

8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 이제 이 정도는 빠르게 전진 독해가 가능하겠죠? ‘맹자’의 주장인데,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있으니까 도덕/내재/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네요. ‘선한 마음’은 ‘도덕’으로, ‘내면에 갖춰짐’은 ‘내재’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9

주로 종교, 법률, 교육, 행정 등과 같은 ‘높은 차원’의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층어’는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식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 반면 가족 간의 비격식적인 대화, 친교를 위한 일상 담화 등 ‘낮은 차원’의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든 ‘하층어’는, 가정에서 모어로 습득되는 경우가 많다. (2017학년도 사관학교)

→ 이번에는 ‘상층어’와 ‘하층어’가 수식된 정의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상층어’는 말 그대로 ‘높은 차원’의 언어적 기능을 담당하는 말입니다. 즉, ‘상층’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종교, 법률, 교육, 행정 같은 것들은 충분히 높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층어는 정식 교육으로 배우게 됩니다. 높은 차원의 언어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 반면 ‘하층어’는 비격식적인 대화나 일상 담화처럼 ‘낮은 차원’의 언어적 기능을 담당하는 말입니다. 종교, 법률 같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일상적인 대화는 충분히 낮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말들은 가정에서 ‘모어’로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비격식적인 대화나 일상적인 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습시다. 이렇게 ‘정의’를 중심으로 천천히 읽는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0

또한 가스 센서가 특정 가스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반응하느냐의 척도인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 값의 50% 혹은 90% 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 가스 센서의 응답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센서가 얼마나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하는지 즉, 응답에 걸리는 시간이 응답/시간입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의 50% 또는 90%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 응답 시간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로 나뉘지만, 이것이 ‘가스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라는 것은 너무 당연히 ‘납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응답 시간이 빠르면 가스 센서의 감지가 빠른 건 당연하니까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에 반해 응답 감도 값의 50%, 90%에 이르는 시간이라는 정의는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시다. 그냥 ‘응답의 감도가 어느 정도 높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중요한 변별 포인트로 출제되는 경우도 극히 적습시다.

11

그리고 어떤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별도는 해당 문항의 답을 맞혔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나타낸다.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 ‘변별도’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변별/도는 말 그대로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별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이러한 변별도는 답을 맞혔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나타낸다고 해요. 바로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봅시다. ‘해당 문항의 답을 맞혔는지의 여부’는 쉽게 말해서 ‘정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별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정답률과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 점수가 낮은 학생은 틀리고, 높은 학생은 문제를 맞힌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정답률을 따졌을 때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틀리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맞히는 것이 되므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정답률이 낮게, 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정답률이 높게 나올 것이예요. 이렇게 되면 변별을 잘한 문항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변별도’를 지수로 나타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12

사진이나 그림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인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 주는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 (2021학년도 4월 학력평가)

→ 디지털 이미지와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디지털 이미지’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은 ‘이미지’이죠? 그런데 이것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이미지’예요.

→ 그리고 뒤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저장·전송하려면 당연히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야겠죠? 데이터의 용량이 크면 전송 속도도 느리고 저장 용량도 많이 잡아먹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를 실현해주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입니다. ‘디지털 압축 기술’은 말 그대로 ‘디지털’ 이미지의 용량을 ‘압축’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용량을 줄이면 당연히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저장·전송할 수 있겠죠?

13

제어 대상의 현재 물리량의 크기를 쟀 측정값을 원하는 목표인 설정값에 일치시키기 위해, 출력되는 조작량을 조절하는 제어 기술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2017학년도 10월 학력평가)

→ 우리가 파악해야 할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측정값’과 ‘설정값’, 나아가 ‘제어 기술’까지 파악해야 이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날려 읽으면 독해가 뭉개지기 쉽기 때문에, 꼭 각 개념을 잘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하나씩 봅시다.

→ ‘측정값’은 제어 대상의 물리량의 크기를 ‘쟀 값’입니다. 말 그대로 물리량을 ‘측정한 값’이 바로 ‘측정/값’입니다. 온도를 예로 들면 현재 측정된 온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 다음 ‘설정값’은 ‘측정값’의 목표가 되는 값입니다. 일종의 기준으로 설정된 값이 바로 설정/값인 것이죠. 이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측정값을 잘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현재 측정된 온도가 30도이고 목표 온도가 40도라면, 30도는 측정값, 40도는 설정값이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측정값을 설정값에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제어 기술’입니다. ‘제어 기술’은 출력되는 조작량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출력량을 ‘제어’해서 측정값과 설정값을 같게 만들어주는 기술인 것이예요. 앞의 예시로 생각하면, 온도를 더 높여서 설정값인 40도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어 기술인 것이죠.

→ 설정값과 조작량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제어 기술’의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식된 정의를 활용하면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들어가는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천천히 정의를 체크하면서 독해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14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한 흄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의 관점과 달리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2022학년도 7월 학력평가)

→ 흄의 관점과 기존의 관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흄’부터 봅시다. ‘흄’은 ‘상상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일단 ‘상상력’을 중심으로 문장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상상력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흄의 관점이 수식된 정의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 기존의 관점은 ‘상상력’을 ‘신체적 · 선천적’ 기능으로 보았다고 해요. 반면 ‘흄’은 상상력을 ‘정신적 · 후천적’ 기능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관점에 따르면 상상력은 몸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흄에 따르면 정신과 관련된 것이네요. 또 기존의 관점에 따르면 상상력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얻어지는 능력이지만 흄에 따르면 그 반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 얻어지는 것이네요.

→ ‘상상력’과 관련된 두 가지 대비되는 입장이 제시됩니다. 각각의 입장이 수식된 정의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이 흄의 생각을 이해하는 출발점임을 인지하고 각 입장의 차이를 파악하며, ‘흄’이 생각한 상상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15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 데이터 입출력 요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네요. 입출력 요청을 하는 게 ‘접근’인가 봅시다. 그러니까 입출력 요청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시간’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단어의 의미와 정의를 엮어 최대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접근 시간이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네요. 하드 디스크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좋겠죠? 빠르게 처리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접근 시간이 짧으면 하드 디스크의 성능이 좋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접근 시간의 정의가 두 개 나왔다는 것을 체크하고 최대한 엮어가며 읽었으면 아주 잘 하셨습니다! 사실 전체 지문이 없어서 하드 디스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데이터 입출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접근 시간이 짧으면 좋지 않을까?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와 같은 상식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문장을 이해해 보려 노력해야 해요.

16

대부분의 분자들은 짝수의 전자를 가지는데, 외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홀수의 전자를 갖는 분자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 변화된 분자를 라디칼 분자라고 한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 이번에도 전진독해하며 바로 이해해 봅시다. 조금씩 바로바로 잡히죠?

→ 대부분의 분자들은 짝수의 전자를 가지는데, 외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홀수의 전자를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분자를 ‘라디칼 분자’라고 하네요. 그럼 ‘라디칼 분자’는 곧 ‘홀수의 전자’를 가진 분자겠네요.

→ 이처럼 ‘라디칼 분자=홀수의 전자를 갖는 분자’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팁을 드리자면, ‘라디칼 분자’는 ‘대부분’의 분자와는 다른 ‘예외’입니다. 평가원은 항상 이런 ‘예외’에 주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예외’는 선지에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고, 아예 화제 자체가 되기도 하죠. ‘정의’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예외’를 발견했다면, 그 정보에 주목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17

폐의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심장을 거쳐 신체의 각 조직으로 전달되어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고, 물질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 탄소는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2020학년도 10월 학력평가)

→ 산소와 이산화 탄소의 순환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게 왜 수식된 정의냐구요? ‘산소’가 폐의 혈액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수식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날려 읽기 쉽습니다. 산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인지해야 그다음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 천천히 읽어 볼까요? 먼저 산소가 폐의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 산소가, 심장을 거쳐 다른 조직들로 이동해요. 우리 몸으로 산소가 들어오고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체내에 들어온 산소들은 ‘우리 몸 속에서’ 에너지 생성에 이용됩니다.

→ 이후 ‘이산화 탄소’의 정의가 수식된 형태로 제시됩니다.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기여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생성했으니, 이를 이용한 물질대사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때 발생하는 ‘노폐물’이 바로 ‘이산화 탄소’였습니다. ‘노폐물’이라면 당연히 몸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산화 탄소’는 혈액을 통해 다시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되어 나가게 된다고 하네요.

→ 결국에는 산소가 유입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산화 탄소가 배출되는 것까지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 ① ‘폐의 혈액’으로 산소가 유입 → ② 산소가 심장을 거쳐 온 몸으로 퍼짐 → ③ 에너지 생성에 이용됨  
→ ④ 이 과정에서 노폐물인 이산화 탄소가 배출됨(노폐물이니까 당연히 몸 밖으로 나가야겠죠?)  
→ ⑤ 이산화 탄소가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이동한 후 배출됨 (①, ②번 과정과 같은 경로로 배출됩니다)

→ 이 과정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폐의 혈액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야 합니다. 물론 과정을 당연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산화 탄소’의 정의도 잘 읽었어야 했어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수식된 정의’의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수식된 형태로 정보가 제시될 때는 우리가 그 정보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신경 써서 읽어야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유의합시다.

18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2010학년도 수능)

→ 이번에도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체크해 봅시다.

③ 각각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말합니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배제’성이겠네요. 경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으니 서로 ‘경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경합’성인가 봅니다. 경합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꼭 사전을 찾아보세요!

④~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예시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례’가 나왔으니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원리’를 적용할 생각을 해야겠죠? 국방이나 치안은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성과 경합성 모두 없습니다. 국방이나 치안은 사실 제도적 시스템에 가깝죠. 우리 집과 옆집, 뒷집, 앞집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모두 ‘순찰’이라는 치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집이 이 혜택을 본다고 해서 다른 집에서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순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찰관 분들께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집 쪽 순찰도는 데에는 1만원이니깐 돈 내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습니다. 정의를 정확히 사례에 적용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⑥~⑦ 이번에는 ‘배제성 X, 경합성 O’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공공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니까 배제성이 없을 것이고, 이용자가 많으면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니깐’ 경합성은 있겠네요. 앞 예시처럼 계속 ‘정의’를 바탕으로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3

① NMR 분광계는 당시에 유일하게 배리언 사에서 제작하고 있었는데, 로버츠는 이것의 가치를 남들보다 일찍이 인식하고 1950년대부터 이 기구로 미지의 분자 구조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② 로버츠는 ‘선도 사용자’로서 유기 화학계에 이 기구의 유용성을 열심히 알렸다. ③ 그는 NMR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이 기구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교재로 출판했다. ④ 로버츠의 노력에 힘입어 이 기구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① ‘NMR 분광계’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로버츠’라는 사람은 이 기구를 바탕으로 미지의 분자 구조를 밝혀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것의 가치를 남들보다 일찍이 인식하고>를 통해 ‘로버츠’라는 사람이 ‘NMR 분광계’를 사용했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누구보다 먼저 사용을 했기에 ‘로버츠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② 로버츠는 ‘선도 사용자’로서 이 기구의 유용성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선도 사용자’라는 말은 ①번 문장의 <이것의 가치를 남들보다 일찍이 인식하고>라는 말과 사실상 같습니다. 남들보다 분광계의 가치를 ‘일찍’ 인식했으니까 ‘선도 사용자’가 되었겠죠?

③~④ 로버츠는 이 기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생들에게 연구 방법을 가르쳤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교재로 출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NMR 분광계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해요. 또한 <연구하고, 가르치고, 출판하고...> 이 모든 것들은 로버츠가 ‘선도 사용자’라는 것에 대한 재진술에 해당합니다. 가치를 일찍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교육, 출판 등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단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 즉 ‘로버츠는 NMR 분광계의 선도 사용자이다.’라는 말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로버츠가 수행한 ‘선도 사용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NMR 분광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그것의 개선에 기여했다.
- ② NMR 분광계의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학술지를 만들었다.
- ③ NMR 분광계를 일찍부터 사용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④ NMR 분광계의 장점을 관련 과학 분야에 널리 알려 그것의 보급에 기여했다.
- ⑤ NMR 분광계의 제작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이론을 제공했다.

→ 이를 바탕으로 하면 답이 4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출판’이라는 것은 기구의 ‘장점을 알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 기구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했으니 ‘보급에 기여’라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선도 사용자’라는 말과 ‘연구, 교육, 출판’이라는 말을 같은 말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4

①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인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② 즉 창조 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2009학년도 수능)

① ‘창조 도시’에 대한 수식된 정의가 등장합니다. ‘창조’적 인재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창조 도시’이겠네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정의를 이해하는 것, 이제는 익숙하시죠?

② 창조 도시에 대한 정의 이후에 ‘즉’이라는 표지와 함께 ‘재진술’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창조 도시에 대한 개념을 대응해 가며 읽어줘야겠네요.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것이 결국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한 것과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말이란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즉’ 이후의 설명이 모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같은 말인 걸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겼던 상당한 양의 정보가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계속 연습하시면서 ‘어? 다 같은 말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② 제한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아미노산을 말한다. ③ 가령, 가상의 P 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아미노산 A와 B가 각각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하자. ④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 2몰이 부족하게 되어 P는 결국 1몰만 합성된다. ⑤ 이때 A가 부족하여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A가 제한아미노산이 된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①~② 아미노산의 정의가 수식된 형태로 제시된 후, 필수아미노산과 제한아미노산의 정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미노산의 정의를 먼저 체크해야겠네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것’이 아미노산이고,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하네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스스로 합성할 수 없으니 ‘필수/아미노산’인가 봅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정의를 이해하는 것, 잊지 않았죠? 그런데 제한아미노산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또 필수아미노산의 개념이 필요하네요. 평가원 지문답게, 개념의 정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시되는 모습입니다. 제한아미노산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필수아미노산 어쩌고 저쩌고...’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아미노산’이 ‘제한아미노산’인 것 정도만 체크합시다.



③~⑤ 본격적으로 예시가 나옵니다. 이 예시를 통해 ‘필수아미노산’과 ‘제한아미노산’을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단백질 하나를 합성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네요.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미노산인 A와 B가 각각 2몰, 1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백질 P를 2몰 합성하려면 A는 4몰, B는 2몰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A와 B가 2몰씩 공급되었으면 A 2몰이 부족합니다. P 2몰을 합성하고 싶은데, A가 부족해서 P 1몰만 합성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가 부족해서 합성될 수 있는 P의 양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한/아미노산’인가 보네요. 정의에 따르면 P의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중에 A의 비율이 가장 낮으니 제한아미노산이 되겠네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천천히 이해해 보면 됩니다.

평가원은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보들은 예시, 재진술을 통해 꼭 이해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 배려를 잘 받아먹기만 하면 되겠죠? 이를 위해 ‘생각’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⑥ ①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②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 ③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B형 공통)

① 첫 문장부터 정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의를 체크하기 전에,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공통 범주를 정확히 잡아두고 읽어봅시다. 내가 뭘 읽어야 할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여기에는 ‘손해 배상’, ‘벌금’, ‘과징금’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수단입니다. 여기서 정의 제시가 끝나지 않아요.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이라는 목적까지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니까,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벌/금도 말 그대로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는 차원에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징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과징금’도 최대한 이해해 보면, 이는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차원’에서 ‘불법 상태’를 고치라(시정하라)는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목적들은 각각 ‘민사’, ‘형사’, ‘행정’의 기본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예요. ‘형사’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구요. 이렇게 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논하는 것이 ‘형사’의 영역이라면, ‘행정’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법의 테두리 안에 돌려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여휘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② 말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예를 들어’를 바탕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겠죠? 사례와 끈질기게 연결해야 해요. 이 기업들의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며,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각각 ‘민사’, ‘형사’, ‘행정’적 수단의 금전적 제재 수단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사례와 원리의 연결!

③ 이렇게 하나 잘못했다고 금전적 제재가 세 가지나 내려질 수 있지만, 이들의 ‘목적’이 다르므로(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해요.)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재진술입니다. 결국 세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봅시다.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중복 제재’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목적’의 금전적 제재 수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중복 제재’, 즉 하나의 잘못에 여러 가지의 벌이 부과되는 건 원래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도둑질을 했고 그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추가적으로 징역까지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7

① 디지털 영상은 2차원 평면에 격자 모양으로 화소를 배열하고 각 화소의 밝기인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이다. ② 화소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일 때 검은색으로 가장 어둡고 255일 때 흰색으로 가장 밝다. ③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라 하며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보인다. ④ 해상도란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를 말하며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① 디지털 영상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원 평면에 격자 모양으로 ‘화소’라는 것을 배열한 후,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이네요. 근데 이 화소값은 ‘화소의 밝기’라고 합니다. 화소의 밝기 값이 ‘화소/값’입니다. 이 정의가 뒤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 처음 제시될 때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파악해줘야 합니다.

②~③ 화소값은 0일 때 가장 어둡고 255일 때 가장 밝다고 하는데, 화소값이 ‘화소의 밝기’를 나타내므로 밝기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후 ‘화소의 밝기 차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화소의 밝기 차이’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화소값의 차이’로 읽어줘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시된 화소값의 정의를 연결해서 화소값의 숫자 차이가 클수록 명암 대비가 강하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상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라고 하네요. 디지털 영상을 ‘화소’가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첫 문장을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을 ‘해상도’의 정의와 엮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영상을 화소가 구성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해상도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지문에 제시되는 개념, 정의 등을 계속 유기적으로 엮어서 다음에 나오는 개념과 정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장을 읽고, 단문을 읽으며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개념의 유기적 연결, 재진술을 통한 정보 줄이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8

①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②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③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④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⑥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⑦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⑧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⑨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⑩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①~⑤ 민간 위탁의 운용 방식이 제시됩니다. ‘경쟁 입찰 방식’은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시키니까 경쟁 입찰 방식인가 봅니다. 공원과 같은 게 ‘예시’네요. 민간 업체에게 경쟁을 시켜 공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민간 업체에게 맡기면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겠네요. 경쟁을 통해 가격이 저렴하고 일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항상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면서 납득하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문의 내용이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체감하는 정보량이 줄어요.



1문단

①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②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평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③ 공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④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⑥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①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서, ‘개인적 선호’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당한지가 물음의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핵심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읽어야겠죠? 특히 첫 문단에서 제시된 물음이라는 점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 지문의 화제가 되겠습니다.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것은 정당할까요?

② 이 문장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덕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개인적 선호’가 개입된 선택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덕 철학자들은 도덕적 선택의 상황에서 ‘공평성’이라는 것을 만족해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평’성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지 말고 ‘공평’하게 따지라는 뜻이겠죠? 이처럼 단어의 의미를 살려 읽되, ‘개인적 선호’라는 화제와의 연관성을 끊임없이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인 ‘공평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③ ‘공평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평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이들의 입장에서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니 당연한 말이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정의를 납득하고 넘어 갑시다.

④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도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표지 없는 재진술이네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또 재진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라는 표지도 있으니 꼭 재진술로 읽어 주셔야 합니다.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해요. 첫 문장에서부터 이야기하던 ‘개인적 선호’를 다시 한번 끌고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니, ‘선호’를 드러내어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겠어요.

⑥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까지는 재진술처럼 읽어 주셔야 해요. 아무튼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들은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주목합니다. ‘인종,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적 요소가 아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첫 문단은 ‘공평주의자’들이 ‘상황’에 따라 도덕적 선택을 다르게 해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문단을 읽었으니,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지문은 ‘공평주의자’가 제시하는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어떤 도덕적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지 말고,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았는데 말이죠.

2문단

①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②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③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에게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④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⑤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① 이렇게 ‘공평주의자’들은 사람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지만, (이렇게 앞 문단의 내용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친분 관계’라는 말을 보자마자 ‘개인적 선호’가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친분 관계’에서는 ‘개인적 선호’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예요.

② 앞문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가족’인 경우는 친분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강하기도 하네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호’라는 걸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도덕적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③ 우리가 궁금해하던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첫 문단에 제시되었던 물음과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은 진짜 잘못되기만 한 것일까요? 아마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겠죠?

④ 아니나 다를까 다음 물음에선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용된다면’에 주목해야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개인적 선호가 허용되는 경우에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리라는 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앞 문단의 내용을 잊지 않고 있었다면, 앞 문단에 나왔던 공평주의자들의 주장, 즉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어야 정당화된다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겠죠. 허용하는 선은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되겠네요. 단어를 바탕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독해’하는 것. 수능 국어 영역 독서의 전부입니다.

⑤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예시가 등장하겠군요. 이 상황들이 모두 ‘선호’를 드러내는 것과 이것이 허용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련될 것입니다. 항상 예시가 나올 땐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 3문단

- ①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②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③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①~③ 사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의 ‘선호’라는 원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철수가 체포한 혐의자는 철수의 형, 즉 ‘가족’이에요. 철수가 형이라는 ‘가족’을 놓아주었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드러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겠네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뒤에서 우리가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을 것입니다.

### 4문단

- ①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②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③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

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④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①~⑤ 이번에도 그리 어렵지 않은 사례네요. 민수가 똑같이 어려움에 처한 삼촌과 영수 중 삼촌의 빚을 먼저 갚아 준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개인적 선호’를 드러냈으니 정당화되기 어렵겠네요.

하지만 한 단계 더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똑같은 상황을 두 가지나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민수의 사례는 철수의 사례와 무엇이 다를까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례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요?

하나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개인적 선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2문단에 제시된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라는 물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라는 것까지도요.

이에 의하면 철수와 민수의 사례에는 ‘상대방의 상황’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수의 사례는 그저 혐의자를 잡아보니 형이었던 것이고, 민수의 사례는 삼촌과 영수가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물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의 사례가 그래서 뭐 어떨다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 5문단

- ①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②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③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④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① 첫 번째로 등장한 철수 예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제 기억나시죠? 도덕적 정당화! 그래서 여기서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이제 제시할 것입니다.

② 도덕적 정당화가 가능한지 묻고 있으니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야 할 텐데, 철수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은 정당화되기 어렵겠죠?

③ 이 포인트를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라는 표지도 있으니 꼭 인지하셔야 해요. 개인적 선호를 표현함에 따라 '공평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해요.

④ 아주 친절한 재진술 문장입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 6문단

- ①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②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③ 민수가 공평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빛을 갉아야 한다. 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① 이번엔 궁금했던 민수의 사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친절하게 물음이 제시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문의 흐름을 잡아 주거나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알려 주는 형태의 문장들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하며 지문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② 아무튼, 민수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드러냈습니다. 여기까진 어렵지 않아요.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이제 민수는 삼촌과 영수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공평주의자'는 개인들의 '상황'을 중시했으니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지문을 읽어 주셔야 합니다.

④ 공평주의자답게,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영수의 빛을 갉아야 했다고 합니다. 삼촌이라는 '가족'에게 더 친밀감을 느낀다는 '선호'를 드러내지 않고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한 행위를 해야 할 때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겠죠. 철수의 사례에선 형 한 사람에 대한 행위 선택이었지만, 민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⑤ 네, 삼촌과 영수의 '상황'은 정확하게 동일했습니다. 사례가 소개될 때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둘의 상황이 달랐다면 '개인적 선호'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공평주의자'가 고려하라고 하는 '상황'은 '개인적 선호'보다 우선시되는 것이지만 '상황'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2문단에 나온 '어느 선'에 밑줄을 치고 지문에서 같은 말을 찾으라고 하는 식의 출제도 가능하겠죠.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이 동일할 때'가 바로 그 '선'이라는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평가원은 자신의 물음을 반드시 회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 7문단

- ①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빛을 갉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③ 반면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④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번엔 '강경한 공평주의자'의 입장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상황'이 완전히 동일한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개인적 선호'가 허용되는 '선' 같은 건 없습니다. 오로지 '상황'에 따른 판단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방금 설명한 포인트를 반복하는 재진술 문장입니다. '이는'과 같은 재진술의 표지가 보였다면, 잘 읽은 것입니다.

③ 이번엔 '온건한 공평주의자'의 입장이 제시됩니다. '온건'하다는 것부터 '강경'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겠죠? '이러한 주장'은 '강경한 공평주의자'의 주장을 가리킵니다. 즉,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 등에게 ‘선호’를 표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는 ‘상황이 같을 때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허용 범위’가 ‘상황이 완전히 같을 때’입니다. 허용이 완전히 안 되느냐, 어느 정도 가능하냐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④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범위가 ‘상대방의 상황이 완전히 동일할 때’라고 알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마지막 문장에서선 혹시나 이 포인트를 못 잡았을까봐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재진술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로 읽혀야 해요. 사례-원리 연결이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연습하기에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 Q.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를 접하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 항상 발문도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발문은 별 내용이 없지만, 발문에서 엄청난 힌트/함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발문에서 시키는 대로 <보기>의 대화를 분석해봅시다.

#### —[보기]—

A: 효심이 지극한 왕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법의 집행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당연히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여야겠지.  
 A: 그러면 왕이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B: 왕이 사사로이 막을 수는 없지. 왕의 직분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A: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내가 그 왕이라면 왕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와 도망가겠네.

- <보기> 문제를 푸실 때는, <보기>의 내용을 먼저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 선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대응시키거나, 새롭게 제시된 정보를 확실하게 체크하는 등이 <보기>를 ‘정리’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 이 <보기>의 경우, 왕이 아버지라는 가족에게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왕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와 도망간다는, 다소 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막으면 ‘개인적 선호’가 개입된 것이므로 도덕적 정당화가 불가능할 것이고, 아버지의 체포를 막지 않는 것이 ‘공평주의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일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선지 판단해봅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상황’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이네요.

①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선호가 작용한 거야.

→ 허락하지 않아야 ‘개인적 선호’가 작용한 것이죠! 우리가 미리 정리한 정보입니다. 이처럼 <보기>를 정리하면 선지에서 우리가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선지가 한두 개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겠죠?

②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인다면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거야.

→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집행관이 ‘왕’이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공평’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즉,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 집행관이 평소 왕을 좋아했든 아니든, 집행관은 아버지를 잡아들여야 ‘강경한 공평주의자’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③ 왕이 사사로이 판단하더라도 지위를 버린다면 공평주의자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야.

→ ‘사사로이’ 판단하는 순간 왕의 지위를 버리든 말든 공평주의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사로이’ 판단한다는 건 공평하지 못하게 판단한다는 뜻이니까, ‘개인적 선호’를 개입시켰다는 말과 같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선지의 내용은 결국 지문 내용의 재진술에 불과하다는 것도 배워 가도록 합시다.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왕의 신분도 지키고 아버지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야.

→ 신분 지키기, 아버지 구하기는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개인적 선호’를 얼마나 잘 배제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⑤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이 볼 때,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민수’의 행동과 차이가 없어.

→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적 선호’를 드러냈기 때문에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행동은 ‘개인적 선호’를 드러냈어도 그것이 허용되는 선, 즉 ‘모두의 상황이 동일할 때’ 표출한 것이므로 정당화가 된다고 했죠? 민수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하는 원리(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와 연결지어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 1문단

①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②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③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④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① ‘인식론’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자연스레 체크하고 있죠? 수식된 정의이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인식론은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인식론’은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식의 본성’을 ‘지식의 유형’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이론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인식론이 어떻게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니다. 이게 곧 화제입니다.

② 인식론이 지식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식론은 ‘안다’는 말의 의미 차이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읽고는 ‘안다’라는 말의 의미로 지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땐 핵심만 파악하고 넘어가야 해요. 뒤에서 예시나 재진술로 설명해 줄 테니까요!

③ 그렇게 넘어오니 ‘예컨대’가 보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예시죠?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하는 것과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한국인이라면 언어적 감으로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이 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④ ‘안다’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인식론’에서는 이를 각각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능력의 소유’라는 점에서 ‘절차적 지식’이고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는 ‘정보의 소유’라는 점에서 ‘표상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정의까지 완벽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해요. 지식의 유형이니까요. 화제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설마 수식된 정의라고 또 놓친 건 아니죠? 잘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면 화제를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유형을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겠군요.

## 2문단

①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③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④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① 두 지식의 유형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많은 ‘정보’를 얻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보’와 ‘능력’이라는 말에 집중하며 바꿔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들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눈 ‘인식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재진술해 준 것입니다. 이 문장을 낯설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② 앞 문장과 똑같은 말이죠? 표지 없는 재진술이지만, 굳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도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차적 지식(능력)’을 얻기 위해 ‘표상적 지식(정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③ 이 문장은 ‘표상적 지식’을 이용해서 ‘절차적 지식’을 얻게 되더라도 ‘절차적 지식’을 얻은 뒤에는 ‘표상적 지식’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체화하면 굳이 ‘페달 밟는 법, 핸들 조정하는 법, 벨 누르는 법’ 등을 떠올릴 필요가 없듯이요. 결국 다시 한번 ‘절차적 지식’이 ‘표상적 지식’과 구별된다는 포인트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바꿔 읽을 수 있겠죠?

나아가, 이 문장의 내용은 여러분의 공부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교재를 통해 배운 수많은 도구들은 일종의 ‘표상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잘 읽게 되는 것은 수능 독서 지문을 읽기 위한 ‘절차적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교재에 명시된 독해 태도들을 완전히 체화하고 자신만의 ‘글 읽는 법’을 알게 된다면, ‘표상적 지식’을 통해 ‘절차적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재에서 배운 ‘표상적 지



식'은 모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독해 태도가 잡히면 굳이 '이건 재진술, 이건 수식된 정의' 이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런 도구 따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에요.

④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하듯이요! 당연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⑤ 하지만 특정한 정보, 즉 '표상적 지식'을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전거를 탈 줄 알아서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탈 수 있다면, '페달 밟는 법, 핸들 조정하는 법, 벨 누르는 법' 따위를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 3문단

① 반면,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의 이미지가 되었던 '이 사과가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던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②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③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④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① 이번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상적 지식'에 대한 내용이지요? 바보같이 '사과 이야기구나 헤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표상적 지식'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때는 '표상적 지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② 물론 여기서 '이 사과가 둥글다'라는 내용이 '표상적 지식'에 대한 내용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친절한 재진술 문장이죠. 다만 앞에서 미리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①번 문장 자체가 예시니까요!

조금 정리해보면,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은 서로 구별되며, '절차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표상적 지식'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③ '표상적 지식'을 새롭게 얻는다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게 될지'가 곧 '절차적 지식'에 해당한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④ 다음 문장은 일종의 재진술이네요. '표상적 지식'은 '떠올린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표상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구별된다고 하는 '인식론'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네요.

### 4문단

①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②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③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④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⑤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① '표상적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표상적 지식은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또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문단을 읽을 땐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② '경험적 지식'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부터 읽을 '경험적 지식'은 결국 '표상적 지식'의 일부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경험적 지식'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정의 체크 잘하고 있죠? '경험'적 증거로 얻은 지식이라서 '경험적' 지식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정의를 이해하셔야 해요.

③ 경험적 지식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여기서는 시각이겠죠?)을 통해 입력되고, 그것을 '떠올리는' 인지 과정을 통해 '표상적 지식'이 된 것이죠. '표상적 지식'은 '떠올린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지'가 곧 '떠올리다'와 같은 말인 걸 알 수 있겠죠?

④ 우리는 '경험적 지식'에서 중시하는 '감각 경험'을 통해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라는 것을 하고, 이로부터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감각 '경험'을 통해 얻은 대상들('증거들')로부터 일반 법칙('지식')에 도달한다는 의미이니깐요, 정보량이 팍팍 줄어들죠? 그리고 이는 Part 1에서 설명했던 '귀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억 안 나면 꼭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⑤ '따라서'로 연결된 재진술이에요.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이 '경험적 지식'이라면,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은 곧 '귀납추리'를 통해 얻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재진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정보량을 줄여 주셔야 합니다!

#### 5문단

- ①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 $2+3=5$ '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② ' $2+3=5$ '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③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④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① ' $2+3=5$ '라는, 다소 뜬금없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선험적 지식'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앞에서 표상적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읽기로 했잖아요! 심지어 ' $2+3=5$ '를 아는 것과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은 '다르다'고도 언급해줍니다.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글의 맥락상 ' $2+3=5$ '는 선험적 지식이 되어야겠네요!

② 이 생각을 가지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 $2+3=5$ '는 굉장히 친절한 예시가 됩니다. 이는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 같은 '경험적 지식'과는 다르게, '감각 경험'으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에 해당하네요. 그럼 우리는 '선험적 지식'의 정의가 곧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정보량을 줄이고 지문의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해요.

③ 또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선험적 지식=진리'라는 원리에 붙여서 이해하면 되겠죠? 물 2리터와 알코올 3리터를 합했더니 5리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 $2+3=5$ '라는 진리가 거짓인 것은 아니죠. 여기서 물과 알코올을 합하는 건 '감각 경험'의 예시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관찰을 통해 '발견'되

는 현상이니까요!

항상 예시를 읽을 땐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선험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예시를 읽을 때도 말이죠! '사례-원리 연결'은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④ 아무튼 이런 것이 '선험적 지식'이라며, 우리가 했던 생각을 확인시켜주고 있네요. 재진술입니다. 나아가 '선험적 지식' 역시 '표상적 지식'의 일부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경험적 지식', '선험적 지식'처럼 비교되는 대상들의 공통 범주를 생각해 주셔야 해요!

⑤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다른 인식 능력'이 바로 '선험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수학적 지식'을 그 예로 들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식론'이 나누고 있는 '지식의 유형'을 소개하는 형태의 지문이었어요.

#### Q.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 '표상적 지식'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경험적 지식', '선험적 지식' 등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두 개념이 대조되는 형태의 지문에서는, 대조되었던 다른 개념이 이런 문제의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능력'을 다루는 '절차적 지식'이 답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대상을 대조시키는 지문에 선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묻고 싶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 선지를 다른 개념으로 설정합니다. 이처럼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가 왜 그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의 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문제를 통해 우리는, 비교/대조되는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의 틀'을 정립하게 된 거예요.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 '이름'이라는 '정보'에 대한 내용이지?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는 '정보'에 대한 내용이지?